

# 공직자 출사퇴 ... 표발 속으로

### 광주·전남 5급 이상 13명 사퇴 ... 행정공백 우려

### 통·리·반장 등 188명도 ... 사직·복직 반복 문제

6·4 지방선거 공직자 사퇴 시한이 6일로 끝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배운태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 13명의 5급 이상 간부 공직자가 사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리·반장과 주민자치위원 등 188명도 선거와 관련해 사퇴했다.

◇공직자 무더기 이탈=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신광조 상수도본부장(3급·서구청장 출마예정), 홍진태 투자고용국장(3급), 정선수 공무원교육원장(3급·광산구청장 ), 김삼철 광주시도서관장(4급·남구청장 ) 등 4명의 공직자가 구청장 출마를 위해 직을 떠났다. 이 중 홍국장은 최근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장 ), 정인화 광양만청 행정개발본부장(3급·광양시장 ), 민중기 전남도의회 의정지원관(이하 4급·화순군수 ), 양동조 동부출장소(전남도의원 ), 최영열 종합민원실장(정무직·영암군수 ) 등 5명이 사직을 했다. 일선 시·군에서는 강진군 장경복 강진읍장(강진군수 )과 완도군 이경동(전남도의원 ) 서기관, 정관범(군의원 ) 사무관 등 3명이 사표를 냈다.

이들 공직자들은 대부분 기초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공직을 떠났고, 일선 통장과 반장들도 선거 운동 등을 위해 출사표를 던지면서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

### 지방선거 출마 고위공직자 사퇴 현황

◆광주	
신광조 상수도본부장(3급)	서구청장
정선수 공무원교육원장(3급)	광산구청장
김삼철 광주시도서관장(4급)	남구청장
◆전남	
배운태 행정부지사(1급)	목포시장
정인화 광양만청 개발본부장(3급)	광양시장
민중기 전남도의회 의정지원관(4급)	화순군수
양동조 동부출장소(4급)	도의원(순천)
최영열 종합민원실장(정무직)	영암군수

선거 관련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를 직무대행 형태로 유지할 계획이다. 또 한꺼번에 많은 자리가 나면서 후임 인사도 요동치고 있다.

◇통·리·반장들도 출사퇴=6·4 지방선거에 대비해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등도 출사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이날 현재 통장 4명, 주민자치위원 54명 등 58명이 사직했고, 전남지역에서는 130명의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이 사표를 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선거사무장, 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연설원, 투표참관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선거 90일 전인 이날까지 통·리·반장 등도 사직해야 한다.

하지만 '생활 행정'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통·리·반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이 선거 때마다 철새처럼 사직과 복직을 반복하는 행태에 부정적 여론도 많다. 또 평소 지역의 마당발로 통하는 이들에 의해 선거관이 '여론몰이 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한 정당 관계자는 "선거 운동을 한 뒤 6개월만 지나면 다시 통·리·반장 등으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직이 의미가 없다"면서도 "워낙 지역 사정에 밝기 때문에 통·리·반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도움을 받으려는 후보가 많은 것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오광필기자 kroh@kwangju.co.kr

# 박지원 "전남지사도 경선 흥행 필요"

### 광주일보 인터뷰 "도민 지지·후배 길터주기 사이 깊은 고민"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6일 새누리당과의 빅매치에 맞서려면 호남에서도 경선 흥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의 전남지사 출마 결심은 다음주 중계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중앙정치와 전남지사 출마를 놓고 고민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지역 여론을 수렴한 결과 전남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지만, 일부에서는 호남을 대표하는 중앙정치에 매진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등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호남을 대표해서 중앙정치를 활발하게 해왔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명감은 중앙정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진짜 갈등을 하는 것은 그래도 (제가) 호남을 대표해서 중앙정치를 해주고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남도민의 높은 지지도 그냥 지나치기 힘들다는 점을 밝혔다.

박 의원은 "호남에 안철수 바람이 강하게 불 때 민주당 중진 차출원이 나오면서 지사 출마론이 불거졌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준 것도 의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등 전남지사 출마를 놓고 고민이 깊어가는 속내를 내비쳤다.

박 의원은 "(저의) 결정이 늦으면 늦을수록 도민에 대한, 다른 후보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주 중에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자신의 출마설과 관련해 다른 후보들의 공격에 대해서는 "몇 년씩을 준비해 온 사람들인데, 준비도 안 한 인물의 지지도가 높으니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전남지사 출마를 위한 수순을 밟는 게 아니라, 저에 대한 기대와 격려에 대해서 지역민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박 의원은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안철수 태풍이 불어올 때, 그 분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6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리마디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주최 풀뿌리아카데미 강연에 앞서 전남지사 출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새누리당의 중진 차출에 따른 경선 흥행을 경계하며 호남에서도 경선 흥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새누리당은 사상 초유의 중진 차출론을 통해 빅매치를 하려고 한다"면서 "통합 신당도 호남에서 흥행몰이를 해주지 않으면 수도권에서 신당의 흥행이 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흥행도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본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호남은 통합 신당으로 인해 또 다시 '경선이 곧 본선'이 됐다"면서 "그래서 적당한 후보가 경선에 이겨 당선된다면 또 다시 호남이 안철수 태풍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박주선 의원 "신당 참여"

### "지위·자리에 욕심 없어 백의중군 하겠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6일 "새로운 정치, 혁신을 추구하는 신당이라는 커다란 광장에 참여하겠다"며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신당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약속을 지켜내고 정치혁신을 위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것이 통합신당의 취

지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주변에선 저의 정치적 위상을 말하지만, 통합신당에 참여하면서 어떠한 지위와 자리를 바라지도 않는 말 그대로 백의중군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신당 창당과정에서 지분싸움, 기 싸움을 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새 정치에 걸맞게 불협화음 없이 창당이 이뤄질 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광주 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광주시 발전을 위해 시장을 하실 분들은 많다"며 "호남의 가치와 호남 정신을 살리려는 정치인이 필요한 만큼 중앙에서 호남의 정신과 가치를 가진 정당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새정치연합 측의 합류

에 대해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각에서는 사양하려는 우려가 있었고, 먼저 참여한 사람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야기도 있어서 그런 면은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면서 "(새정치연합 측)이걸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흘렀지, 내가 좌고우면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그동안 안철수 의원으로부터 새정치연합 합류 제의를 받아왔으며, 민주당으로부터도 복당 제의를 받아왔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지방선거 3개월 앞 ... 광주·전남 선관위, 본격 선거관리체제 돌입

### 선거법 위반 행위

### 감사·단속활동 강화

광주·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를 90일 앞둔 6일 중앙선관위에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본격적인 선거관리체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선거종합상황실은 주·야간 비상근무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 250개 구·시·군 선관위의 선거 관리 준비상

황을 점검·지원하고, 긴급 사안에 신속히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선관위는 최근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각 정당에 경선체제에 돌입함에 따라 선거법위반 행위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와 정당·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 운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사전 안내와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공무원의 출사퇴·출 세우기 등 불법적 선거 관여 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후보자 추천·사퇴와 관련한 금품 수수 행위 ▲불법 선거 운동조직 설립 행위를 '4대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 철저히 단속해 단호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는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 사전투표일 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모의 사전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달 말까지 투표소 예정 장소

를 직접 방문해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 투표소 실태를 파악하고,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하는 사전투표소를 확정하며, 투표지분류기 등 개표 장비를 일제히 정비·점검한다.

한편, 선관위는 국고보조금 배분대상인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4곳을 대상으로 시·도지사 선거 등에 대한 당내 경선 위탁 신청을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교통안전분야 OECD 10위권 달성을 위한 교통안전공단 新 브랜드 『오천만 안심』 프로젝트

오천만의 교통안전 행복한 대한민국

**오**  
2020년 까지 사망자 50% 감소

**천**  
철도·항공 글로벌 천하제일

**만**  
국민이 만족할때 까지

**안심**  
안심서비스는 계속 됩니다

국민과의 약속 : 오천만 국민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

- 운수회사의 안전관리를 국제기준(ISO39001)을 적용한 자율적 안전관리 기법도입
- 전세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정보 제공 서비스 전국민 확대
-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를 운영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 및 실시간 택시 운행관리 시스템 구축
- 지자체 행정처분 내역 모니터링으로 부적격운전자 사고위험요소 집중 관리